



**양계업 양극화 현상  
경영개선이 급선무**

지난 연말 외환위기를 시작으로 그간 누적된 양계업의 문제점들이 하나 둘 표출되면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양극화 현상이다. 과거에는 규모간 비교로 우위를 따졌으나 이제는 규모에 관계 없이 수익을 내느냐, 적자를 내느냐에 따라 건실성과 지속성 여부를 판정하게 되었다.

양계업도 시설자동화의 시대적 변화에 의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차입금 비율이 높아져 산물 출하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낮아지면 상환에 큰 어려움을 겪는 처지에 놓인

양계농가들이 많아졌다.

종전까지는 자체 자금으로 양계업을 해야 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생산이 과잉되어 출하가가 낮아도 투자한 자금에 대한 이자만 손해보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으나, 현재는 투자개념이 바뀌어 이자와 원리금을 제때에 상환하지 못하면 곧 바로 부도로 이어져 파산하고 만다. 차입금 규모가 큰 농가들은 금융비용이 높아져 어려움을 겪는 곳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사양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질병 피해를 입어 경영 자체가 어려워지는 곳도 있다. 환율이 높아져 사료비가 인상된 것을 시발로 생산비는 국제경쟁력에 역행하여 높아져 있는데 많은 부실 농가들이 도산하여 주인이 바뀌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금융비용에 부담이 없는 농가들이 시설 자동화를 안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여 안도하고 있으나 시간이 경과하여 첨단 시설자동화된 농장들이 우여곡절을 겪으며 상황이 끝나게 되면 생산비 면에서 유리하게 되어 국제경쟁력을 앞세워 저가 출하공세를 펼 공산이 높다.

이렇게 되면 다시 규모간 경쟁이 치열해진다 는 이야기로 귀착이 된다. 이 과정에서 건설한 규모가 작은 농가들이 서둘러 시설자동화를 통한 규모확대를 시도하면 만성적인 과잉생산 현상이 빚어질 수도 있다.

계속해서 양계업은 양극화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소비경향은 양적인 모습에서 안전성을 바탕으로 질적인 수준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소비확대에 한계가 오면 양계업이 장기간 불황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으므로 계속되는 양극화 현상을 막고 제값받기 등을 통한 저가 출하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업계 스스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규모간 경쟁 보다는 내실있는 경영관리를 통하여 마진을 높이는 쪽으로 경쟁을 해나가야 국제경쟁력이 확보된다. 높은 환율이 계속되어 수입이 불가능해진다는 보장은 없다. 머지않아 환율은 적정선으로 내려간다는 전제 아래 가공품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생산비를 낮추어 가는 일을 잊어서는 결코 안된다. 환율이 안정되면 양계산물 수출국의 공세가 본격화될 것이다.

**HACCP제도의 정착방안  
단속위주는 실효성 적어**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대책이 정책적인 차원에서 제도화 되어 시행되어가고 있다. 전에도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해 내기 위한 제도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부분적이고 단계마다 독립적으로 시행되어 안전성 확보의 효율적인 이행에 다소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하에 생산 전 과정과 가공, 유통단계까지 연계해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위해요소를 차단한다는 개념이 HACCP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 제도이다.

HACCP제도 이행은 이미 선진국의 경우 매우 보편화된 상황이다. 양계장, 부화·종계장, 도계장, 가공 또는 유통단계의 안전성 확보 대책이 미흡하여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단계마다 위해요소가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 원인을 규명하고 차단조치를 하는 것이다.

시행 초기 단계에 있는 우리로서는 아직도 정상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유도하는 정부의 입장과 규정에 따라 생산에 임해야 하는 업계의 현격한 견해차가 많기 때문이다.

수입이 개방되어 있고, 소비자들의 구매 수준이 앞서 있어 우리도 위해한 축산물 생산 수준을 벗어나야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정부의 시각과, 필요성은 인정하나 당장 원칙대로 시행해야 하는데서 오는 생산비 상승 때문에 가 능하면 시행을 늦추려는 업계의 입장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을 기점으로 팽팽히 맞서 있어 어떻게 전개될지 걱정이 앞선다.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HACCP제도의 신속한 이행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우선 이 제도가 정착되려면 정부는 지속적인

고 원칙을 지키려는 농가나 업체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산비 증가로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제도 정착은 묘연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원칙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득을 보게 하면서 지키지 않으면 손실이 있음을 깨닫게 하면 HACCP제도 정착은 성공을 거둘 수 있으리라 보여진다. 세계화 시대에 안전한 축산물 생산은 그것이 곧 경쟁력 강화이다. 생산단계별로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임을 상기하자.

## 사료원료수급의 안정화 세계 곡물시장 불안에 대비해야

지구 환경변화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라니냐와 엘니뇨의 현상으로 가뭄과 홍수가 시간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는가 하면 기온도 변화가 커서 식물이 자라는데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까지 이르고 있다.

축산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사료원료의 경우 우리나라는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예를 보면 사료원료의 수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대략 두 가지이다. 첫째는 달러가 없어 지불능력이 없을 때이고, 둘째는 곡물이 부족하여 가격이 상승해 구매가 어려워지는 경우이다.

두가지 요인이 다 배합사료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를 빚는다. 곡물을 수출하는 나라 보다 수입하는 나라가 많아 자원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달러부족이든, 공급부족이든 불리한 입장임에

는 틀림이 없다. 현재로선 사료원료 확보에 비상이 걸려도 해결할 뾰족한 수가 없다. 약간의 축발기금지원 외에 안정기금도 없고, 국가 신용도 하락으로 은행의 지불보증도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이 우리의 국내 신용을 들어 GSM-102 자금에 대한 지원조건을 까다롭게 하여 지원자금 배정을 미뤄 내년에도 수입될 사료원료 확보에 적신호가 들어 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

사료원료의 구매 감소로 오히려 국제곡물가가 예상외로 하락하여 금년에는 외화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밖에는 없었지만 당장 내년의 곡물 수급상황은 세계 경기여건에 따라 변수가 많을 것으로 전망들을 하고 있어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돈이 없고 공급물량마저 부족하면 양질의 사료원료 확보에도 어려움이 큰 것 만은 사실이다. 항상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뒷수습을 하는데 익숙한 우리나라 대책강구에 건주어 볼 때 안정적인 사료원료 수급에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한다.

사료수급이 제대로 안되어 축산인들이 잘못 되면 실업자는 급증하게 되므로 정부 차원에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사료원료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국제 시장동향을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 확보와 필요량을 사전에 구매할 수 있는 대안도 세워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대비가 사후대비 보다 예산이나 후유증 면에서 엄청난 효과를 거두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업계도 남의 일인양 흘려 보내지 말고 좀더 분명한 자세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사료원료 확보 방안 강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양계**